

# 철쭉 만개한 해남 흑석산서 힐링축제

27~28일 이틀간 자연휴양림서  
흑돌 맨발걷기·숲속 멧돼지기  
사생대회·댄스경연·가요제 열려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들이 치유숲 체험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의 대표적인 산림치유 공간인 흑석산 자연휴양림에서 힐링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은 자연휴양림이 신록으로 물들고, 흑석산의 명물인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아 27~28일 흑석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축제를 펼쳐진다고 밝혔다. 힐링축제에는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연휴양림 곳곳에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어린이 사생대회와 댄스경연대회, 흑석산 가요제 등이 열리며, 페이스페인팅, 연 만들기, 뽕튀기 만들기, 숯대체험, 원예테라피 체험 등 가족 체험 행사가 열린다. 해남의 대표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농산물 홍보 판매관과 먹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치유의 숲에 마련된 흑돌 산책로 맨발걷기를 비롯해 숲속 멧돼지기,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메이리즌, 숲속 가야금 연주, 티베트·네팔 상인불체럼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철쭉 군락지를 찾아가는 흑석산 산행 행사도 열

려 자연휴양림에서 깃대봉 정상까지 등산코스를 함께 걷는다. 흑석산자연휴양림은 계곡면 흑석산(653m)에 자리한 산림복합 휴양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산림교육 등을 운영하는 해남의 대표 산림휴양지이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참나무 군락지를 따라 치유의 숲이 조성돼 있고,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숲속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장미정원 등이 어우러져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흑석산자연휴양림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뮤지컬과 불꽃의 환상적 만남... '목포해상W쇼' 27일 올 첫 공연

평화광장서... 11월까지 4차례 진행



지난해 열린 목포해상W쇼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의 대표 야간 관광 행사인 '목포해상W쇼'의 올해 첫 공연이 오는 27일 열린다. 올해 목포해상W쇼는 4월, 5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추석 연휴 맞이 9월14일까지 총 4번 진행될 예정이다. 그중 7월에 예정된 공연은 북항노을공원에서 진행되며,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공연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목포해상W쇼는 'W'가 분수 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 공연으로 감동(Wow)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작한 W쇼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공연과 불꽃이 결합한 해상 불꽃 쇼이다. 올해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콘서트형 행사로 강화했다. 뮤지컬 갈라쇼, 댄스 뮤지컬, 일렉트 로닉댄스뮤직(EDM) 공연 등을 통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연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개막 공연에서는 감성 국악 그룹 '밴드 이강'의 사전 공연으로 막이 오른다. 주 공연에서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팬텀오브드 오페라 출연진들이 유명 뮤지컬 작품들로 목포의 밤을 낭만으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날 공연부터는 시설 기능 개선사업으로 한동안 운영되지 않았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다시 운

영된다. 분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11월30일까지 정기공연을 이어간다. 봄(4월~5월), 가을(9월~11월)에는 화·수·목·일요일 하루 2회(오후 8시~8시 30분) 운영되고, 금·토요일에는 하루 3회(오후 8시~8시 30분, 밤 9시) 운영된다. 여름철(6월~8월)에는 공연을 늘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회(오후 8시~8시 30분~밤 9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해상W쇼를 목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는 행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신안군, '플라스틱 없는 섬' 만든다

'순환 경제도시 플라스틱 0' 선포식  
친환경 소재 기업 '그리코'와 협약



활용해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앞장 서고 있는 기업이다.

신안군이 지난 23일 '신안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 강화 추세 및 자원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위기, 환경 위협 증가 우려에 따른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 순환형 생태계 조성에 신안군이 앞장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플라스틱 제로 2050은 농수산 부산물 및 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보급으로 205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소비처분에 있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자연순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군은 이와 관련 자연순환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 그리코(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그리코(Grico)는 식량으로 사용 불가한 쌀을

활용해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앞장 서고 있는 기업이다. 양측은 친환경 제품 생산단지 설립과 개발 제품의 산업화에 상호 협력하고 신안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천연자원 기반의 자연순환형 플랫폼 구축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서는 관내 기업들과 더불어 군민들의 동참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무안군, 항공특화산업단 4년만에 조성 완료

5월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분양 개시

무안군이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됐다.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관련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466억원, 면적 35만360㎡ 규모의 산업단지 공사에 들어갔다. 2020년 11월에 착공한 이 단지는 오는 5월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며 분양이 시작된다. 이 단지에는 항공MRO, 항공물류, 부품 등의 업종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산업시설용지 중 4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지로 쓰인다. 2019년 군과 투자협약(MOA)을 체결한 ㈜무안에어로테크닉스는 항공MRO부지에 대한 분양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지난 3월 군과 반도체 관련 7개 기업은 1340억 원 규모의 산단 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에 혼풍이 불고 있다. 군은 무안국제공항, 2개의 고속도로와 목포항에 인접해 있고 2025년에는 KTX가 개통되는 교통요충지로의 지리적 우수성과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된 3개의 대학이 위치해 투자에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분양가 산정 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당 15만8730원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특화산업단지는 무안군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산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성과를 거두고 전남 서남권의 경쟁력 있는 산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대교 울돌목 주말장터 27일 개장

매주 토·일요일 열려

진도의 맛과 멋이 가득한 울돌목 주말장터가 오는 27일 개장한다. 울돌목 주말장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도대교 아래 울돌목 광장에서 열린다. 보배섬 진도군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울금 수제 돈가스, 전복대파구이 등의 맛있는 요리와 찰흙미, 김, 미역, 진도홍주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며 상인들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주말장터를 찾는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전통가요, 난타, 퓨전국악, 전통무용 등 진도의 멋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개장식에는 가수 김상희, 박우철, 최영철 등의 축하공연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상현실(VR) 사진찍기 등 즐길거리도 함께 준비해 울돌목 주말장터에 활기를 돋울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 쏠바치 진도와 진도 와 제주를 잇는 여객선 이용 관광객 증대로 활력 넘치는 울돌목 주말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진관광지의 진도타워, 해상케이블카 등 다양한 볼거리 많은 진도에서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